

서울서 추석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6-8일 은평구서 29개 업체 참여 대규모 장터 운영 최대 30% 할인...남도김치 담그기 체험 등 이벤트도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6일부터 3일간 서울 은평구 불광천에서 전남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직거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전남도-은평구 농특산물 직거래 한마당은 광주전남시도민회와 협력해 서울시 자치구와는 최초로 공동 추진한다. 행사는 4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판매 부스 29개, 남도장터, 남도김치 등 홍보 부스 4개, 체험 부스 4개다. 이번 직거래 한마당은 참여 기관별

로 역할을 분담했다. 전남도는 직거래 장터 부스 설치, 행사 참여 업체 모집 등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은평구는 구청 누리집과 맘카페, 구청 소식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광주전남시도민회는 전남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5만원 이상 구매한 향유에게 2만원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직거래 한마당은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풍성하게 구성됐다. 판매

부스에서는 전남의 대표 농특산물인 전남 쌀, 배·밤·무화과 등 과일, 김·미역·다시마·젓갈·소금, 김치 등 다양한 제품을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 100여명에게 김치를 직접 버무려 가져가는 남도 김치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전남의 맛과 멋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직거래 한마당이 개막하는 6일 영암 출신의 김미경 은평구청장, 장윤성 김양희 서대문구청의 의장, 강윤성 광주전남시도민회장, 전남도의 장영근 중앙협력본부장과 박호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장터를 둘러보며 전남의 다

양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시민과 장 보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직거래 장터를 지속 추진해 전남 우수 농수산물을 알리고 도시민에게 저렴하게 판매해 도농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14-1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22개 시·군이 참여하는 2024 전남도 직거래장터 큰잔치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직거래 행사를 통해 전남 우수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와 도시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강기정 시장,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 권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광주 시장이 4일 조선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비상 진료 체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현장을 살펴보고 응급 의료 체계를 점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은 이날 김진호 조선대학교병원장 등과 함께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상황, 응급 환자 수용 현황 및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차질 없는 운영에 만전

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선대병원원은 현재 기존 의사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번아웃 등 극도의 피로감에도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산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거듭 감사사를 표했다. 강기정 시장은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시는 아픈 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선강 기자



4일 오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교육협력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현판제막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시민협치진흥원 '광주교육 발전' 힘 모은다

교육협력추진단 출범...민·관·학 협력 구심점 역할

광주시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이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4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청에서 '교육협력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추진단 경과 보고, 현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지난 3월 광주시, 광주시교육청, 자치구가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개원을 계기로 체결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향후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의 구심점으로서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함께 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협력추진단은 ▲지자체-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확장 ▲교육발전재구 사업 개발·운영 ▲교육통합지원체계(온마을이음학교)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세부 과제로 ▲SI ▲문화·예술 ▲마을교육 ▲진로·진학 ▲안전·인권 ▲기후·환경 등 다양한 교육 의제를 발굴·기획한다.

광주시는 ▲지역교육환경 문제점 해결 ▲시정 목표에 따른 교육시책 추진 ▲거버넌스에 포함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초·중등 교육 종합 조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광주시와 함께 9월부터 시정 1층 교육협력추진단 사무실에서 주 1회 교육 관련 협의·과제 해결을 진행하고 온마을이음학교 확장 및 교육발전재구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교육협력추진단이 교육협력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육통합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재해있는 교육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별 목표를

세워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명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협력해 교육 선순환 구조가 정착하도록 시의회도 노력하겠다"며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교육 거버넌스가 더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교육협력추진단을 통해 온마을이음학교 사업을 총괄 운영하고 지자체별 지역 교육 과정을 광역급으로 확장해 모든 학생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광주시가 소통과 협력으로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다이 기자

추석 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시, 오늘 대규모 점포 5곳...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광주시는 4일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 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전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 규격 적용 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 제품 등 명절 선물 세트

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 배출 표시 적정 표기, 무단 표기 여부도 점검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전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 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수목 세계화 속도...국내외 특별전

서울·미국 LA順

전남도는 4일 "남도 수목 세계화에 본격 나서기 위해 이달부터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수목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시는 '흘러가는 바람, 불어오는 물결'이란 주제로 오는 9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후 미국으로 이동, LA한인축제 개막식에 맞춰 LA한국문화원에서 26일부터 10월31일까지 해외 전시를 진

행한다. 이번 전시는남도 수목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고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한 허달재·허준·김침달 등 저명 작가의 수목 작품을 전시한다. 특히 전통 수목 작품과 채색이 깃든 수목담채화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이 수목의 전통적 멋과 함께 현대적 감각까지 다양한 작품을 경험하도록 꾸몄다. /양시원 기자

변하기 쉬운 신선제품

처음 그대로 신선도 유지 제품 개발 화재!

포도, 새우, 김치, 깍두기, 과일, 야채, 소고기, 굴비, 치즈, 조개, 생선 등 얼음 아이스팩을 넣어도 변질되기 쉬운 제품 1일이 넘으면 안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걱정 끝!

푸른도깨비 1팩만 넣으면 5일동안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품이 개발되어 신선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사업 후 여러분의 근심을 덜어드립니다.

1팩을 넣어서 택배를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이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 신선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1팩당 500원

푸른도깨비를 택배에 1팩을 동봉하여 발송하면 5일동안 변질없이 처음 그대로 유지됩니다.

푸른도깨비 실제사용과 비사용의 비교

식빵 부패실험 비교
방부제 미처리 식빵은 2일만에 곰팡이가 발생함. 푸른도깨비는 어떠한 세균도 발견하지 않는다.

1일차

2일차

4일차

사과 부패실험 비교
푸른도깨비를 처리한 농산물 및 과일에서는 곰팡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2일차

4일차

5일차

7일차

공장, 택배물류센터 환영!

무료 신청 택배비 소비자 부담, 본사 메일로 신청 yunanbio@naver.com

전국 시도 총판 모집

대양식품(주)

본사 080-374-5046

기술제휴 | 자연과생명연구소

광주 지사 010-3738-8989

062) 525-7585